

다향오리, 풍성한 '추석 선물세트 5종' 출시



국내 오리업계 브랜드 '다향오리'가 추석을 맞아 신선하고 건강한 원료육만을 사용해 준비한 '다향오리 추석 선물세트 5종'을 선보였다.

총 5종의 다향오리 추석 선물세트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다향오리는 순하다' 세트다. 다향오리의 인기 제품인 훈제슬라이스(500g/3팩)와 허브갈릭훈제슬라이스(400g/2팩), 그리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백선 소시지(300g/2팩) 및 발사믹 소스 1개로 구성됐다.

추석 한정판으로 1회용 아이스박스가 아닌 다용도 아이스백에 담아 판매해 추후 소비자는 캠핑 및 나들이 등 외부 활동 시 아이스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1등급 무항생제 원료육으로 만든 훈제슬라이스를 기본으로 구성한 '다향오리 스페셜A' 세트는 1등급 무항생제 훈제슬라이스(400g/4팩)와 허브갈릭훈제슬라이스(400g/2팩) 등으로 구성됐다.

다향오리 추석 선물세트는 사전 주문 받은 수량에 따라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오더메이드(Ordermade) 방식으로 판매했다.

선물세트는 실속 있는 2만 원대 세트부터 풍성한 7만 원대 세트까지 마련됐다.

제품은 9월 7일까지 이마트(일부매장 제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및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했다.

천지일보 이현정 기자 [2014. 08. 28]

다향오리, 흔들어 먹는 '나는 오리 육포다' 2종 출시



국내 오리업계 1위 브랜드 다향오리가 100% 오리고기로 만든 육포를 특제 분말 수프와 함께 흔들어 먹는 신제품 '나는 오리 육포다' 2종을 출시한다.

다향오리의 '나는 오리 육포다'는 엄선된 국내산 오리 고기만을 갈아서 건조시킨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이다. 오리육포 그대로의 뛰어난 풍미와 함께, 기호에 따라 색다른 맛과 재미

를 느낄 수 있도록 각각 칠리맛과 치즈맛 수프를 동봉해 2종으로 판매한다.

다향 통합 기획실 박은희 상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다향오리 제품을 고객들이 더욱 간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나는 오리 육포다'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다향오리는 오리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답게, 앞으로도 뛰어난 품질의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다향오리의 '나는 오리 육포다'는 이마트 일부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며, 점차 매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가격은 1봉(30g)당 3,000원 대이다.

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2014. 09. 19]

(주)건지, 고상식축사 발명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주)건지(대표 곽춘욱)는 자사에서 개발한 고상식축사의 발명특허를 인정 받아 9월 17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